

용서합시다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18: 23-31]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24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25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26 그러므로 그 종이 었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27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28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29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었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 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30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31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32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이여,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33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34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35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 두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구원 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를 취소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왕에게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의 크기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33 킬로그램 (약 72 파운드)이며, 오늘 날자에 금 1 kg 의 가격이 \$59,000 이니까 금 한 달란트의 현재가는 개략 \$1,947,000 이며, 만 달란트의 오늘 현재가치는 약 194 억불 (한화로는 388 조원)로 계산됩니다. 이 가치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진 빚을 상징하는 매우 큰 금액으로서,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큰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모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빚'과 '죄'의 대등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빚을 탕감하다'는 '빚을 용서하다 (Forgive deb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심은 우리가 그분에게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멸절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 또는 부정했던 것으로 커다란 죄를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각 죄인이 이렇게 큰 죄의 빚을 지고 살았는데, 주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지고 그 빚 탕감을 위해 귀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귀한 피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 엄청난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채를 가졌던 이 종은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지낼 수 밖에 없는 재판 선고를 받았지만, 왕께 자비를 간구했을 때에 왕께서 그를 조건 없이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속량할 아무 댓가를 지불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불과 백 데나리온, 즉 오늘날 미국 돈으로 약 60 불 정도의 작은 빛을 갚지 못하는 다른 동료 종을 옥에 가두고 악하게 대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단지 60 불의 빛을 갚지 못할까요? 이렇게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료에게 참으로 악하게 대한 이 종은 왕이 자신에게 배풀었던 커다란 자비와 은혜를 배반하고, 왕의 인격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왕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독하고, 형제에 대하여 작은 빛, 즉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악한 종에게 탕감해 주었던 빛을 원상 복귀시켜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형제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원상 복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벌을 받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 상실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잘못했어도 왕의 종인 것이므로, 우리도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한 잘못을 했어도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왕국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종들을 처벌하는 곳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그 처벌을 받는 동안에 이 악한 종은 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늘 왕국 시민들의 기쁨과 사귄에서 제외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마태 25:21]”는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과 벌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친절하고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거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일들도 모두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남들의 잘못들을 관대히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